

# '남원 추어탕' 세계 식탁 오른다 순창군, '아동 물놀이장' 인기

### '지리산 품은 남원추어탕' · '전통 남원추어탕', 미국·캐나다·호주 수출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인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이하 조합)의 대표 상품인 추어탕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 길에 오른다.

30일 수출되는 제품은 '지리산 품은 남원추어탕'과 '전통 남원추어탕' 총 5,310팩 분량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 수출을 담당하는 식품 유통사 삼진글로벌네트가 운영하는 현지 한남체인과 왕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조합은 100% 국내산 원재료로 최상급 미꾸리지와 남원산 고춧가루, 들깨, 순창 한식 된장, 진한 고랭지 시래기 등으로 레토르트 추어탕을 생산, 국내 최초로 토종 미꾸리 양식에 성공해 남



미꾸리추어탕

원시와 협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아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 수산 신지식인 상을 표창받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지리산 품은 남원 추어탕'은 신선한 활 미꾸리지와 백일

무 시래기를 사용하였으며, 타제품에 비해 미꾸리지 함량이 높아 추어탕의 진한 맛을 즐기기에 제격인 프리미엄 제품이고, '전통남원추어탕'은 1인 가구가 많아진 식문화를 고려하여 300그램 소포장으로 중량을 맞춰, 한 톨배기에 딱 최적인 맛을 재현한 제품이다.

조합은 "캐나다, 호주 대륙으로 확대된 판로에 힘입어 추어탕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이호담(이름과 좋은 것만 담다)', 장어탕, 메기매운탕 등 다양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의 타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간편식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개장 첫 주말 2000명 물려 활기... 다양한 시설 갖춰 무료 운영

순창군이 무료 야외 아동 물놀이장을 지난 27일 개장해, 주말 동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가득 찼다.

특히, 개장 첫날인 27일에는 특별 기념행사로 버블쇼, 합기도 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말 동안 약 2,000명의 피서객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물놀이장은 활기로 넘쳤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순창을 향토화관 야외무대 광장에 자리 잡은 이번 물놀이장은 순창군의 지원으로 순창군 청년회의소(순창JCI)가 위탁 운영하며, 개장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물놀이장 내에는 연령대별 에어풀장, 워터 슬라이드, 그늘막 쉼터, 탈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까지이며,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말에는 물놀이 시설 외에도 푸드트럭 운영과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여름 더위가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물놀이장이 군민들의 시원한 피서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운영 기간동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물놀이장은 8월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단체 방문을 원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창 청년회의소(063-653-31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순창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2024년 3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집중 일제 정리 정수는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징수를 제고와 세입 증대로 군 재정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순창군, 하반기 새농촌육성기금 접수

순창군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47농가에게 16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 융자 계획액은 20억 원으로 연 1% 이율, 3년 자율 상환 조건으로 농업인은 5천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의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일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도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춘향 씨감자 생산 '막바지'

남원시 주력 작목인 춘향 씨감자의 생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날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춘향 씨감자 생산농조 합법인에서 원종·보급종 감자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남원 춘향씨감자 사업은 강원도 보급종 감자의 농가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의 남원 고유브랜드를 개척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3월에 정식한 후 관수, 시기별 약제사용, 단계별 바이러스 감염여부, 기타 병해충 감염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한 무병종서로, 약 100톤의 보급종 씨감자를 선별 후 남원지역 감자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는 17농가에서 9.3ha를 재배해 약 130톤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



내 시설감자 재배농가들이 가을과 겨울에 파종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다.

김연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맛과 품질이 뛰어난 춘향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가 지원은 물론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가족센터, 중년기 아버지 요리교실 종강

임실군가족센터가 지역 내 50세 이상 아버지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중년기 아버지 요리교실 '집밥의 고수! 패밀리 레프!'를 종강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중년기 아버지 요리교실은 지난 6월 14일 개강하여 7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요리를 배우고 싶은 중년기 아버지 2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 교육을 실

시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피자떡볶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한식 메뉴와 찹스테이크, 단호박스프 등 특식 메뉴로 구성됐다.

아빠 웨프가 되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의 요리 시연을 보며 메도하고 재료를 다듬으며 요리를 완성해 나갔다.

/임실=전종영 기자

###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요가·노래 등 총 12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직영하고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남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복지관에서는 상반기에 요가, 요리, 스마트폰 교실 등 10개 종류의 프로그램과 유튜브 스쿨 등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해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

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로 선정하였으며, 요가, 간편식, 라인댄스, 소도구 필라테스, 통기타, 스마트폰 활용, 하모니카, 미술, 노래, 서예(초급), 민요, 탁구(초급)반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

후 5시까지 복지관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신분증 및 임사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결과는 8월 5일 주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강생 모집 관련 문의는 복지관으로 전화(020-5852~4)하면 된다.

복지관 김수진 담당관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디지털리더스클럽 수료식 진행

남원시는 지난 27일 남원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SW미래채움사업 지역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디지털리더스클럽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W분야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남원시는 디지털리더스클럽 과정을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 진행했으며, 특히 국내 최초 Arduino Education 국제 공식 교육과정을 도입 10명의 학생이 국제 자격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메티스엑스의 윤준호 수석연구원이 'SW개발자의 길', '세상을 바꾸고 있는 SW'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소풍



하며 미래 IT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SW엘리트 교육을 위해 지난 2023년도에 이어 올해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학습과정도 AI 학습 및 다양한 주제와 기술을 다룸에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프로젝트와 실습도 포함한 심화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코딩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용 6축 로봇을 제어하고, 가상 현실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

용한 콘텐트를 제작해보는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았으며, Amazon(아마존코리아) 오피스투어 직무체험(워킹백워드)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았다.

수료생 중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은 국제적인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IT 기업 탐방의 기회도 주어진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밀하게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코딩은 어려웠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더 컸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이영미 스마트시티팀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리더스클럽을 통해 청소년들이 SW 개발에 대한 소질과 흥미를 발휘하며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 청년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